

문서번호	투자유치과-1280
결재일자	2014.2.14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금융산업팀장	투자유치과장
반혜영	한병주	02/14 김정선

**금융중심지 조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 
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**

투자유치과

#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

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 
개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## 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4. 2. 12(수) 15:00 ~ 17:00
- 장 소 : 투자유치과 과장실
- 참 석 : 10명 (외부 전문가 6명)
  - 대외경제정책연구원(윤덕룡 박사), 현대경제연구원(박덕배 연구위원),  
노무라증권(최광렬 부사장), 스테이트스트리트(박성원 대표),  
블랙록자산운용(양성락 대표), 러셀인베스트먼트(김유석 대표)
  - 투자유치과장, 금융산업팀장, 업무담당자 외 1명
- 회의안건 :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

## □ 주요 의견

### ① 국내 금융시장 동향

-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 
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사업 축소 및 철수
  -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철수 : 2012.11월
    - ▷ 한국의 제한된 투자 플랫폼과 판매 기회의 부족 원인
    - ⇒ 외국계 금융사가 영업하기 힘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줌
    - ▷ 한국 금융시장은 국내 자산운용사의 거대 계열사 영업 네트워크를  
통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해외 자산관리사의 진입이 어려움
  - HSBC은행 : 소매금융 철수('13.7월) 및 '14.3.21일부터 부산  
지점 등 10개 지점 폐쇄

- 스탠다드차타드은행 : 국내지점 축소(346개 ⇒ 250개) 예정,  
SC저축은행 및 캐피탈도 매각 진행중
- 씨티은행 : 지점 축소(22개) 및 인력 구조조정 예정
- 아비바그룹 : 철수 추진중
- ※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로 금융 투자 위축

## ② 금융허브 방향정립 필요

- 여의도는 종합금융중심지로 추진하고 있으나, 금융허브 후발 주자로서 서울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방향정립이 필요함.
-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경제여건상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자산 운용특화 금융허브로 조성하면 가능성이 있음
  - 저성장·저금리·고령화 등에 따라 노후대비 자산운용 수익에 사회적 관심 증가하고 있음
  -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 연기금의 위탁 운용에 관심이 많으며, 연기금 및 퇴직연금 등으로 위탁운용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함
- ※ 외국계 금융사는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등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내에 진입하게 되나, 현재 은행, 증권, 보험 등은 경쟁 심화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사실상 곤란함

## ③ 서울시의 역할

- 외국 금융사 유치는 금융산업 수익성 제고 등 금융시장 영업환경 조성이 필수적으로 정부차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하고,
  - 금융시장 영업환경 조성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한계가 있음
- 서울시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중심지로 진입하는 외국계 금융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매뉴얼화 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해야 함

#### ④ 해외 금융사 서울 유치방안

- 법률 제·개정을 통한 여의도지역을 " 금융특구" 로 지정 필요
  - 금융특구에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외화거래의 자유화, 금융규제 완화,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금융사 유치
  - 여의도에 해외 우수 금융전문대학 또는 서울시립대의 MBA과정 분교 설치를 통해 글로벌 금융전문인력 양성 필요
- 연기금 등에서 위탁운용사 선정시 외국 금융사의 한국 법인설립 의무화 또는 가산점 비중을 높이도록 선정기준 강화
  - ※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외국법인은 한국 법인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
- 해외 투자펀드(주식, 채권, 대체투자 등)에 부과되는 법인세(15.4%) 감면 등으로 자산운용 활성화 및 금융사 유치 도모
  - 인센티브 제공시 조세 감면이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가장 효과적임
- 외국 금융사가 처음부터 한국 지점 또는 법인설립을 하는 것은 자본투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무소로도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필요
-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 및 ICT와 금융산업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
  - 카드산업과 한류 마케팅 활용 등
- 현재 국내외 금융산업 여건상 금융허브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금융시장 여건 호전시에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함

#### ⑤ 정주환경 개선

-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교육·주거·의료·비즈니스환경 등 기본 인프라 지속 개선 필요
  - 현행 도로 신호등 체계는 내국인도 알아보기 어려우니 누구나 알기 쉽게 개선 필요(예시 : 교차로, 중앙차로 신호등)
  - 서울시에서 할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가동하여 생활불편 해소 노력

□ 향후계획

○ 금회 자문 및 의견을 고려하여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방향에 반영여부 등 검토

-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및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조정 등은 적극 추진 필요

※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은 현재 신경민 국회의원(민주당)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

붙임 : 자문위원별 의견내용 1부. 끝.